

지역 소식통

김제 지평선시네마 26일부터 정상 운영 시작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2월24일 임시휴관했던 지평선시네마가 26일부터 정상운영재개한다. 지평선시네마는 운영재개에 앞서 전체 시설에 대해 방역 소독을 추진하고, 영화관 카페트 및 의자 스텝 클리닝을 실시하는 한편 직원들에게 생활속 거리두기 지침을 정확히 숙지도록 교육하여 코로나19 대비에 만전을 기하였다.

지평선시네마는 개봉영화 2편(나는보리, 루광3세), 재개봉 영화 1편(신세계) 등 총3편으로 상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영화관 정상운영에 따라 앞으로 김제시민의 문화욕구 충족 및 여가생활 향유를 위해 더 노력할 것이며, 관람객을 위해 지속적으로 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관람객 마스크 착용 및 발열체크, 시설 내 이용자 간 간격 유지 등 관람객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강신호 문화홍보축제실장은 "지평선시네마에 대한 사전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입장 전 마스크 착용 및 발열 여부 체크확인을 시행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제23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폐회

김제시의회(의장 온주현)가 지난 22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5일간 진행된 제236회 임시회 일정을 마쳤다. 김제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제2회 추경예산안과 17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을 처리했다.

1회추경 대비 509억 원 증액된 9,546억 원 규모의 2회 추경예산에는 ▲지난 4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241억원과 ▲코로나19 대응 김제시 재난기본소득 지원금 84억원, ▲고용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사업 44억원 등이 포함됐다.

특히 추경안 확정으로 김제시에서 자체 편성한 '김제시 재난기본소득 지원 사업'(시민 1인당 10만 원씩 지원)을 신속하게 추진함에 따라,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농촌 '생생마을 만들기' 추진

김제시, 지역 고유 특성 살린 자율적인 공동체 활동... 활력 넘치는 농촌 마을 조성 목표

김제시(시장 박준배)는 2020년 주민주도형 생생마을만들기 사업으로 기초단계 6개소, 사후관리단계 1개소를 최종 선정해 주민이 스스로 기획하고 추진하는 주민주도형 생생마을 만들기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생생마을 만들기 사업은 마을 환경 정비 및 경관 개선, 마을 고유의 전통 문화 계승 활동 및 마을 주민 동아리 활동 지원 등을 추진하는 기초단계 사업과 농촌 마을 소유의 시설로 노후화되어 소득 창출에 어려움이 있는 마을의 시설 개보수나 장비교체, 마을상품, 인허가, 디자인개선을 지원하는 사후관리단계로 나뉜다.

김제시는 2016년부터 이러한 생생마을만들기 사업을 통해 총 31개소의

마을, 진봉 갈전마을, 광활 용평마을, 교월동 신월마을 총 6개소는 기초단계 사업 대상으로 공모 선정되어 마을공동체가 주체적으로 사업을 기획하고 참여, 공동체 역량을 강화하는 소규모 공동체 활동을 위해 개소당 5백만원 지원, 각 마을별로 특색있는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또한 공덕 중촌마을은 사후관리단계 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5천만원으로 기존 운영 중인 마을 소유 시설의 생산 공정 효율화를 위해 추가 장비를 구입하여 안정적인 제품생산을 통해 농가 소득을 증대할 수 있게 된다.

김제시는 2016년부터 이러한 생생마을만들기 사업을 통해 총 31개소의

생생마을이 조성, 마을 공동체가 중심이 되어 마을의 고유의 체험, 관광, 전통, 문화, 경제자원 등 지역 고유의 특성을 살린 자율적인 공동체 활동을 추진하여 활력과 생기가 넘치는 농촌마을을 조성해 왔으며 앞으로 주민 주도의 공동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마을 사업 추진을 통해 생생마을을 꾸준히 발굴할 계획이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저활력화된 농촌에 생생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으로 다양한 주체간의 상호 작용과 활동을 유발하여 농촌 유지, 발전의 원동력인 농촌 활력을 창출하여 사람찾는 농촌 구현에 김제시가 앞으로도 꾸준히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은 올해 55세 이상 완주군민을 대상으로 병의원에 배해 50% 가량 저렴한 9만 원에 대상포진 유료 예방접종을 시행하고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 확대 실시

완주군민 대상포진 예방접종... 55세 이상 병의원보다 50% 저렴

완주군이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확대 실시하고 있다.

완주군은 올해 55세 이상 완주군민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유료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완주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가격은 9만원으로 병의원에 비해 50%가량 저렴하다. 또한 정부재난지원카드(신용카드)도 사용가능하다.

군은 기존 65세 이상 완주 1년 이상 거주한 완주군민 대상에서 55세 이상 완주군민(196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으로 대상자를 확대했다.

대상포진은 사람 몸의 등뼈 부근에 있는 신경절에 잠복상태로 있던 수두 바이러스가 다시 활성화되면서 발생하는 질병이다.

보통 수일 사이에 피부에 발진과 특이한 물집 형태의 병적인 증상이 나타난다. 극심한 통증과 지각 이상이

동반될 수 있으며 50세 이상의 연령에서 급격히 증가하며, 65세 이상에서는 젊은 연령층에 비해 발생률이 8~10배 가량 높게 나타난다.

대상포진 예방은 적절한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 균형 잡힌 생활 습관의 개선으로 면역력 높이는 것이 중요하며, 대상포진 발병 위험이 높은 성인은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서둘러 받는 것이 좋다.

현재 완주군 보건소에서는 2019년 4월부터 완주군민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실시해 총 2300여명이 접종했다.

최순례 완주군 보건소장은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확대 시행해 합병증을 최소화해 건강한 노후생활을 도모하는 데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비 지원사업 관련 문의는 완주군 보건소(290-3049,3050)로 하면 된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제시, 2021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보고회 개최

김제시장, "미래성장 기반 구축 위한 부처 예산 반영에 힘쓸 것"

김제시(시장 박준배)는 코로나19 조기 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경제도약, 정의로운 김제'를 건립할 수 있는 국가예산 확보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제시는 지난 22일 박준배 시장 주재로 실과소장 이상 간부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국가예산 추진상황 보고회(6차)'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연초부터 국가예산확보를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5차에 걸친 보고회를 통해 국비확보 활동을 해온 주요사업들의 증빙부처별 예산

확보 가능성 및 동향을 분석하고,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각 부처별 예산안이 기획재정부로 제출되는 이 달 말까지 부처별 상황변화를 주시하면서 맞춤형 대응 논리를 마련하고, 지역 국회의원 및 정치권, 중앙부처 출장인사 등 가용한 인적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정부 예산동향을 파악하기로 했다.

정주여건 조성, 농촌환경 개선, 일자리 창출 등 지역 현안과 관련된 김제시 주요확보 대상 사업은 ▲신동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250억원) ▲백구·

진봉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80억원) ▲아리랑문화마을 시군 연계 체류형 패키지관광사업(31억원) ▲여수해지구 자연재해취약개선지구 정비사업(64억원) ▲투자선도지구 지정(100억원) 등 42개 신규사업으로 총 사업비 8,357억원, 국비 확보 목표액은 574억원이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재정투자 계획에 발맞춰 김제시 국가예산 확보 방향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다"며 "어려운 시기인 만큼 모든 공직자와 지역 정치권이 하나되어 목표한 사업들이 중앙부처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혜와 역량을 모아 나가자"고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2020년 제2차 지방투자촉진보조금 101억원 확보

김제시(시장 박준배)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관한 '2020년 제2차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통해 국비 81억원을 포함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101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보조금 신청을 위한 타당성 평가를 진행하여 요건을 구비한 2개 기업에 대해 3월말 신청서를 제출한 김제시는 이후 산업부의 서류심사, 현장평가, 소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난 15일에 개최된 심의위원회 심의까지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보조금을 신청한 2개 기업 모두 지원대상으로 확정되었다. 이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김제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해 있는 (주)알룩스와 백구특장차단지 소재하고 있는 (주)니랩 등 2개 기업이다.

자동차 단조 알루미늄 휠 생산기업인 (주)알룩스는 김제자유무역지역내 1만 6,529.3㎡ 부지에 2021년 7월까지 22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생산라인을 추가로 구축하고 70명의 신규인력을 채

용할 계획이며, 캠퍼가 전문 제조기업인 (주)니랩은 백구특장차단지내 1만3,223㎡ 부지에 2022년 2월까지 106억원을 투자하고 신규인력 40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박준배 시장은 "우리지역에 투자를 결정한 기업들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정착·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기업맞춤형 지원 정책을 발굴·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주매일 PDF 지면보기 서비스 www.jjmaeil.com에서

완주군, 청년실직자 생생지원금 지원 실시

완주군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자리를 잃은 청년들의 생활안정과 사회진입활동 촉진을 위해 청년실직자에게 생생지원금을 지원한다.

지난 22일 완주군에 따르면 청년실직자 생생지원금 지원 사업은 청년들의 생활 여건 악화 방지와 사회 진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사업이다.

청년들이 주로 근무하는 시간제·단기근로·일용근로·아르바이트 등은 대부분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다.

대상자가 선정되면 실직할 청년 1인당 50만원씩 3개월간 최대 150만원을 지역상품권으로 지급 할 예정으로 예산 소진시까지 실시한다.

신청자격은 완주군에 거주하는 만18세에서 만39세이하 청년으로 최소 1개

월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시간제·단기근로·일용근로·아르바이트 등에 근무했고,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한 날인 지난 1월 20일 이후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1개월 이상 실직 상태여야 한다.

지원신청은 25일부터 다음달 6월 14일까지 전북청년허브센터 홈페이지(www.jb2030.or.kr)를 통해서 온라인 접수를 하면 된다.

완주군 관계자는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실직자들의 생활안정을 돕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신청 및 심사 절차 등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사항은 전라북도 홈페이지고사공고(www.jonbuk.go.kr) 또는 완주군청 사회정책과 청년정책팀(290-3238)으로 문의하면 된다. /완주=이종복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호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